



동방 경제 포럼 소식

총 1조6천억 루블 상당의 140건의 협정서 동방경제포럼에서 체결 준비 됨. 또한 EEF에서는 극동지역에서의 투자자들을 지원할 새로운 메커니즘과 인구감소 문제와 아태지역의 환경 균형 유지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EEF 개막식에는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환영사를 했다. ("Interfax")

러시아 연방 극동개발부는 동방경제포럼 첫날 총 1조 루블에 달하는 투자 프로젝트 실행 협정서를 체결했다. 그 중 약 2천억 루블은 이미 체결된 계약서의 금액이며, 양측이 모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내년에는, 즉 제 3차 EEF 때에는 2.9조 루블 상당의 550건의 신규 프로젝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갈루쉬카 장관이 밝혔다. ("Tass")

EEF차원에서는 "유라시아 원석 센터" 개막식이 열렸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는 원석-다이아몬드 분야의 기업들을 연합시킬 독창적인 클러스터가 생긴다. "알로사" 기업의 이 프로젝트는 국제무역과 보석의 가공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Ria "Novosti")

신 "보스호드" 투자 시스템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 이 프로젝트는 극동개발기금과 "RTC 비영리 금융시장 개발 파트너십"간의 협동 프로젝트다. "보스호드"에서 발행된 첫 국공채는 1억 루블 상당의 "아비아터미털"사의 채권으로, "하바롭스키 공항"의 자회사이다. 이 회사의 목적은 하바롭스크 국제공항의 재건축 자금 유치이다. ("Rossiiskaya gazeta")

“현대 컴 오토” 연해주에 화물차 조립 장 설립. 본 공장은 트루도보이 마을에 위치할 것이다. EEF에서는 본 투자에 대한 협정서의 금액을 9700백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 차대를 기반으로 경상용차는 추가적으로 러시아 생산품인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Avto TransInfo”)

루스키섬 동방경제포럼 차원에서 아무르 호랑이와 극동 표범 보호를 위한 자선 달리기 대회 개최. 참가자들은 100만 루블 이상을 모았다. 이 달리기 대회에는 정치가, 사업가, 신문기자, 그리고 달리기 아마추어 등이 참여하였다. 모아진 기금은 러시아 국제 공원에 행사 실행을 위해 쓰일 것이다. (“Izvestiya”)

“러시아 향후 5-7년간 투자 쿼터 메커니즘을 통해 150척의 다양한 선박 건조 할 수 있다”-웨스타코프가 제 2차 동방포럼을 앞두고 밝혔다. (“Tass”)

중국의 China Machinery Engineering Corporation (CMEC) 사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2개의 전력소를 포함한 몇 개의 에너지 시설 건설에 참여하려 한다고 동방경제포럼을 하루 앞두고 CMEC 대표 차오 친이 밝혔다. (Gorodskoyportal.ru)

Rosneft과 General Electric은 동적위치 유지 시스템 현대화에 대한 협력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본 시스템의 목적은 선박을 제시된 위치에 고 정밀하게 유지시키며 외부 환경에 방해받지 않고 조작과 가동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Energy Base)

러시아 직접투자 기금과 중국의 Inventis Investment Holdings는 EEF 차원에서 농업산업단지와 교통, 소매업, 관광 프로젝트를 위해 5천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당 청의 대표 드미트리예프가 밝혔다. (Finversia.ru)

로스콘그레스와 로스투리즘은 비즈니스 관광 개발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로스투리즘의 대표 사포노프에 따르면 “비즈니스 관광은 가장 수요가 높고 그리고 필요한 관광 중 하나이다”. (“Rossiiskaya gazeta”)

동방경제포럼 참석자 입국 첫날에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승객운송량 기록 세워. 8월 31일 8300명의 승객이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을 이용하였다. (Ria Novosti)

“극동의 거리” 페스티벌 EEF차원에서 개최. 극동의 9개의 지역과 특별 게스트인 크림 공화국이 이번 전시회를 위해 특별히 독특한 전시관을 준비하여 각 지역의 경제,문화 또는 자연에 대한 특징을 선보이는 전시품을 전시했다. (“Tass”)

“루스기드로”공사와 캄차트카주 정부는 동방경제포럼 차원에서 협력 협정서를 체결했다. 본 협정서는 캄차트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우선순위로 사용한 연료-에너지단지 발전 프로그램을 2030년까지 장기 개발에 대한 문서이다. (Novosti@Rambler.ru)

극동의 뉴스

푸틴 대통령: “정부는 극동에 있는 투자자들의 사업 조건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있다”.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대해 EEF 첫날 극동유망투자자들과의 만남에서 전했다. 투자자들과의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정부가 사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러시아연방은 투자자들의 제안을 감안하고, 극동 투자자들의 사업 환경을 조정할 준비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Izvestiya”)

“한국의 현대자동차, 삼성, KCC사는 기술 관정 현지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 했다고 웨레이킨 기술발전청 대표가 전했다. 그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이미 필요한 양의 부품과 러시아 공장에서 조립할 부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Tass”)